

『御藥院方』 이본(異本)에 대한 연구 - 「痰飲門」을 중심으로 -

^{1,2}엄동명, ^{3,4}송지청

¹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²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³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⁴제한동의학술원

A Study on Different Versions of *Eoyakwonbang* Based on the Phlegm-fluid Chapter

^{1,2}Eom Dongmyung, ^{3,4}Song Jichung

¹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⁴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Eoyakwonbang is a collection of prescriptions of Yuyaoyuan, an imperial medical bureau of China. While the first edition of this book does not exist at present, two versions printed in Korea, and one printed in Japan, which is the well-known Gyesasingan *Eoyakwonbang* have been passed down. *Eoyakwonbang* is a meaningful text for the history of medical communic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but research on the different versions and contents of *Eoyakwonbang* have been insufficient. Out of the 2 versions published in Korea, Eulheja *Eoyakwonbang* is different from Gapjinja *Eoyakwonbang* [another version in Korea] and Gwanjeong *Eoyakwonbang* of Japan, in that the prescriptions are organized, the ingredients a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each ingredient for each formula, and the amounts are recorded in an accurate manner. On the other hand, the Gapjinja version has many mistakes in the characters and content. The Gwanjeong version has lesser mistakes in characters, but repeats the content error of the Gapjinja version. Eulheja was printed after correction based on the original version or unknown version from China. Gapjinja was re-printed based on the Gyesasingan version, while Gwanjeong seems to have used the Gapjinja version as its original script, as the mistakes made in the Gapjinja version are repeated in the Gwanjeong version as well.

Key words : *Eoyakwonbang*, Phlegm-fluid retention, versions, medical history

I. 序論

『御藥院方』은 中國皇室의 의약기관인 御藥院의 處方으로 판단된다. 御藥院은 宋 太宗 至道 3년(977년)에 처음 설치된 기구로 金朝, 元朝에도 설치되었으며, 皇帝와 宮廷에 필요한 藥務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다.¹⁾

『御藥院方』의 초간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현재 통용되는 서적으로는 日本에서 간행된 『癸巳新刊御藥院方』이 있다. 이 서적은 寬政年間(1789-1800)에 출간된 서적으로 권11의 말미에 丹波元簡의 跋文과 千賀芳久의 識語가 있다. 千賀芳久의 글에 따르면 이 책은 寬政戊午年(1798년)에 출간되었으며 乾隆聚珍板 형식을 따라 출간한 것이다.²⁾

기존 연구³⁾에 의하면 『御藥院方』이 朝鮮시대에 한반도에 流入⁴⁾되었다고 하며, 金斗鐘은 『韓國古印刷技術史』에서 朝鮮 明宗대에 『御藥院方』이 刊行되었다⁵⁾고 하였는데, 한

접수 ▶ 2018년 10월 25일 수정 ▶ 2018년 11월 27일 채택 ▶ 2018년 11월 23일
교신저자 ▶ 송지청,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53-819-1826 Fax : 053-819-1850 E-mail : prunedias@gmail.com

1)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 戊午仲冬 醫官法眼千賀芳久識(『癸巳新刊御藥院方』)

3) 周益新. 『御藥院方』研究. 山西中醫. 2007;23(1):56.

4) 당시 유입된 『御藥院方』이 『癸巳新刊御藥院方』이었으리라 추정된다. 후술하겠지만 조선에서 출간된 『癸巳新刊御藥院方』은 校勘書이기 때문이다.

중일 삼국의 醫學交流史를 연구하는데 의미가 있는 서적으로 판단되나, 三國의 『御藥院方』의 판본 및 내용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없어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II. 本論

1. 『御藥院方』 간행사항

『御藥院方』의 初刊本은 현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행 과정은 『御藥院方』 序文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高鳴의 序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太醫院 提點인 榮祿大夫 許公과 2~3명에 이르는 동료들이 御藥院에서 壬寅年(1242년)에 간행한 方書를 얻어 오류를 바로잡고 빠진 바를 보태고 부족한 것을 구하여 채워 보냈다. (중략) 至元年間 丁卯年(1267년) 8월 9일에 翰林院 直學士 河東人 高鳴이 서문을 쓰다.[太醫院提點榮祿許公 暨二三僚友 取御藥院壬寅所刊方書板 正其訛 補其缺 求其遺亡而附益之 (中略) 至元丁卯八月九日 翰林直學士河東高鳴序]6)

이 序文은 1267년에 작성되었으므로 『御藥院方』은 그 이후에 간행되었으며, 許國楨이 ‘御藥院壬寅所刊方書板’(이하 壬寅本이라 함)을 바탕으로 교정하였다고 한 내용을 미루어 許國楨은 『御藥院方』의 撰者7)가 아니라 校訂者임도 알 수 있다. 즉 壬寅年(1242년)에 간행된 『御藥院方』8)을 바탕으로 許國楨이 校訂하여 1267년 이후 校訂本 『御藥院方』(이하 校訂本이라 함)을 간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 校訂本은 中國에서는 散失되었으며, 후에 朝鮮과 日本에서 『御藥院方』이 刊行되었다.

1) 朝鮮版 『新刊惠民御藥院方』

朝鮮本 『御藥院方』에 대한 기록은 清代에 처음 등장한다. 清代 張金吾는

『新刊惠民御藥院方』 20卷 (중략) 이 책은 일찍이 元代 至元연간에 출간된 옛서적으로 首尾가 완전하여 참으로 醫書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秘書이다.[新刊惠民御藥院方二十卷 (中略) 此本尙是至元舊槧 首尾完善 洵醫書中不易睹之秘籍也]9)

라 하여 『新刊惠民御藥院方』을 언급하였으며, 三木榮은 한국에서 刊行된 中國의서로 분류하였다.10)

『新刊惠民御藥院方』은 乙亥字로 刊印(이하 乙亥字本이라 함)되었으며 정확한 刊寫年은 알 수 없으나, 金斗鍾11)과 三木榮12)은 燕山君~中宗사이에 刊印된 것으로 보았다.

乙亥字本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乙亥字本 : 延世大學校 所藏 金屬活字本(乙亥字) / 刊寫年未詳13)

四周單邊 半郭 14.9×22.1 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上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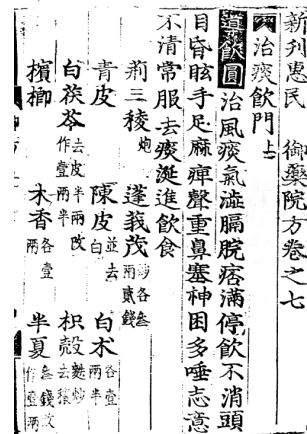


그림 1. 乙亥字本 『御藥院方』

5)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81:180.
 6)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續修四庫全書(卷100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1.
 7) 『續修四庫全書』에는 許國楨 撰으로 되어 있다.
 8) 三木榮. 『朝鮮醫書誌』. 東京: 井上書店. 1973:228.
 9) 張金吾. 『愛日精廬藏書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4:356.
 10) 三木榮. 『朝鮮醫書誌』. 東京: 井上書店. 1973:227.
 11)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3:156.
 12) 三木榮. 『朝鮮醫書誌』. 東京: 井上書店. 1956:227.
 13)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도 서지사항이 동일하다.

2) 朝鮮版 『癸巳新刊御藥院方』

본서는 현재 日本 內閣文庫가 소장하고 있다. 甲辰字로 刊印(이하 甲辰字本이라 함)되었으며 정확한 刊寫年은 알 수 없으나, 三木榮은 中宗~明宗사이에 刊印된 것으로 보았다.¹⁴⁾

甲辰字本은 11卷5冊으로 되어 있으며 卷1 앞에 高鳴의 序文이 있다.

甲辰字本の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甲辰本 : 일본 내각문고 소장 金屬活字本(甲辰字) / 刊寫年未詳

四周單邊 半郭 15.5×21.0 cm, 有界, 12行19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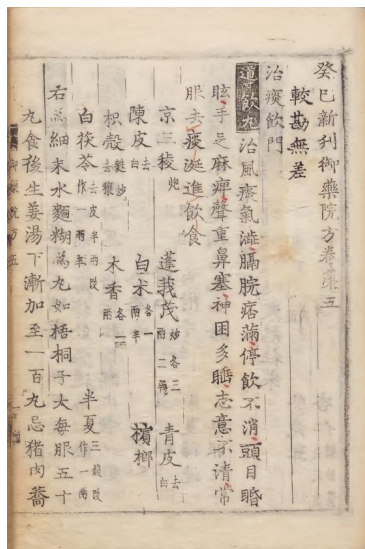


그림 2. 甲辰字本 『御藥院方』

三木榮은 甲辰字本이 元代 刊本(壬寅本과 校訂本 중 어느 것임을 지칭하지는 않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활자본으로, 뒤에 서술할 日本版 『御藥院方』의 藍本이라고 평가하였고, 刊行시기는 乙亥字本 이후에 刊行된 것으로 보았다.¹⁵⁾

3) 日本版 『癸巳新刊御藥院方』

日本版 『癸巳新刊御藥院方』은 寬政戊午年(1798년)에 刊

行(이하 寬政本이라 칭함)되었다. 甲辰字本과 마찬가지로 11卷5冊으로 되어 있고, 卷1 앞에 高鳴의 序文이 있지만, 卷11 말미에 丹波元簡의 跋文과 千賀芳久의 識語가 있다.

寬政本の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寬政本 : 일본 내각문고 소장 金屬活字本 / 刊寫年 1798年 四周單邊 半郭 16×21.5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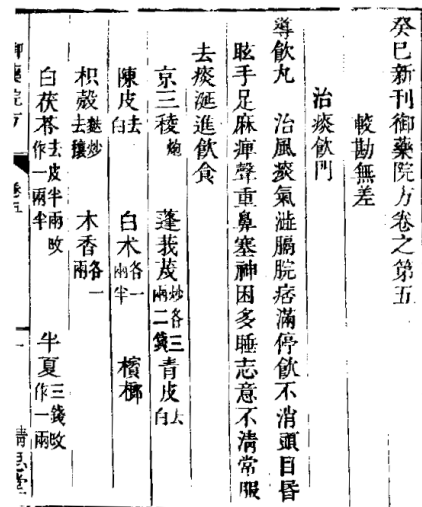


그림 3. 寬政本 『御藥院方』

丹波元簡이 庚申年(1800년)에 寬政本 여러 권을 淸商人 沈敬瞻에게 주었는데¹⁶⁾, 이 寬政本이 현재 中國에 전해진 『御藥院方』이다.

이제 乙亥字本, 甲辰字本, 寬政本의 내용 비교를 통해 서서적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판본별 『御藥院方』

1) 編制 비교

乙亥字本은 현재 권5, 6, 7, 8과 권18, 19, 20이 있고, 甲辰字本과 寬政本은 완질로 되어 있다. 이들의 권수사항과 서문 및 발문의 존재여부를 살펴보면 다음(표 1)과 같다.

14) 三木榮. 『朝鮮醫書誌』. 東京:井上書店. 1956:228.

15) 三木榮. 『朝鮮醫書誌』. 東京:井上書店. 1956:228-229.

1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56:859.

표 1. 乙亥字本, 甲辰字本, 寬政本 『御藥院方』 비교

	乙亥字本		甲辰字本	寬政本	비고
서문	X	서문	○	○	高鳴
권1	X	권1	治風藥門	治風藥門	
권2	X	권2	治傷寒門	治傷寒門	
권3	X	권2	治傷寒門	治傷寒門	
권4	X	권3	治一切氣門上	治一切氣門上	
권5	治一切氣疾中				
권6	治一切氣疾下	권4	治一切氣疾下	治一切氣疾下	
권7	治痰飲門上	권5	治痰飲門	治痰飲門	
권8	治痰飲門下				
권9	X	권6	補虛損門	補虛損門	
권10	X				
권11	X	권7	治積熱門	治積熱門	
권12	X				
권13	X	권8	治雜病門	治雜病門	
권14	X				
권15	X	권9	治咽喉口齒門	治咽喉口齒門	
권16	X				
권17	X	권10	治眼目門	治眼目門	
권18	治瘡重折傷門		治瘡重折傷門	治瘡重折傷門	
권19	治婦人諸疾門	권11	治婦人諸疾門	治婦人諸疾門	
권20	治小兒諸疾門		治小兒諸疾門	治小兒諸疾門	
跋文	X		X	○	丹波元簡
識語	X		X	○	千賀芳久

* 乙亥字本の 결본(권1, 2, 3, 4 및 권9, 10, 11, 12, 13, 14, 15, 16, 17)과 甲辰字本 및 寬政本の 권수별 연결은 임의대로 작성하였음.

甲辰字本과 寬政本은 권수가 동일하고, 乙亥字本은 壬寅本 또는 校訂本을 바탕으로 새롭게 편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痰飲門」 내용 비교

(1) 卷頭

乙亥字本에는 卷頭 다음에 바로 본문이 있지만, 甲辰字本과 寬政本 卷頭 다음에

較勘無差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乙亥字本은 藍本을 校勘한 서적이 아니라 는 사실과, 甲辰字本과 寬政本은 藍本을 바탕으로 刊行하면서 동일한지 여부를 校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甲辰字本과 寬政本의 喃本이 바로 『癸巳新刊御藥院方』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방이름 및 처방순서

처방의 명칭은 乙亥字本, 甲辰字本, 寬政本이 대부분 유사하다. 하지만 乙亥字本과 甲辰字本은 처방명이 음각되어 있고, 寬政本은 양각되어 있다. 그리고 甲辰字本과 寬政本의 丸劑는 乙亥字本에는 壞痰丸을 제외하고 모두 圓으로 되어 있다.

또한 甲辰字本과 寬政本에는 동일한 門 내에 同名의 처방이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乙亥字本은 同名의 처방을 하나로 모으고 ‘又方’이라 하여 한 처방 내에서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판본별 處方 이름과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표 2)과 같다.

표 2. 「痰飲門」 처방명과 순서

乙亥字本	甲辰字本	寬政本	비고
卷7	卷5	卷5	
治痰飲門上	治痰飲門	治痰飲門	
導飲圓	導飲丸 ¹⁷⁾	導飲丸1	丸劑를 圓으로 개명. 이하 동일
半夏利膈圓	半夏利膈丸1	半夏利膈丸1	
又方			
紫蘇半夏湯	紫蘇半夏湯	紫蘇半夏湯	
大半夏湯	大半夏湯	大半夏湯	
小半夏湯	小半夏湯	小半夏湯	
賺氣散	賺氣散	賺氣散	
青龍散	青龍散	青龍散	
參蘇半夏湯	參蘇半夏湯	參蘇半夏湯	
前胡散	剛胡散	前胡散	
寧氣湯	寧氣湯	寧氣湯	
寧神圓	寧神丸	寧神丸	
玉仙散	玉仙散	玉仙散	
消痰圓	消痰丸	消痰丸	
祛風圓	祛風丸	祛風丸	
滌痰圓	滌痰丸	滌痰丸	
蠟煎散	蠟煎散	蠟煎散	
人參補肺散	人參補肺散	人參補肺散	
貝母湯	貝母湯	貝母湯	
開結枳實圓	開結枳實丸1	開結枳實丸1	
又方			
神應丹	神應丹	神應丹	

17) 甲辰字本과 寬政本의 동일처방은 숫자를 표기하여 구별하였다. 다만 乙亥字本의 導飲圓은 동명의 처방이 하나 더 있다.

紫菀圓	紫菀丸	紫菀丸	
潤肺圓	潤肺丸1	潤肺丸1	
又方			
藿香散	藿香散1	藿香散1	
又方			
利膈圓	利膈丸	利膈丸	
大人參半夏圓	大人參半夏散	大人參半夏丸	
又方			
團參散	團參散	團參散	
蛤蚧膏	蛤蚧膏	蛤蚧膏	
小枳殼圓	小枳殼丸	小枳殼丸	
十珍餅子	十珍餅子	十珍餅子	
大半夏圓	大半夏丸	大半夏丸	
小半夏圓	白雪丸	白雪丸	白雪圓의 위치와 바뀜.
木香半夏圓	木香半夏丸	木香半夏丸	
白雪圓1	小半夏丸	小半夏丸	小半夏圓의 위치와 바뀜.
止口逆圓	止口逆丸	止口逆丸	
沉香湯	沉香湯	沉香湯	
玉芝徐老圓	玉芝徐老丸	玉芝徐老丸	
製半夏法	製半夏法	製半夏法	
辰砂利膈圓	辰砂利膈丸	辰砂利膈丸	
	半夏利膈丸2	半夏利膈丸2	동명처방 이동
平肺散	平肺散	平肺散	
導飲圓2	導飲丸2	導飲丸2	
柴胡飲子	柴胡飲子	柴胡飲子	
	藿香散2	藿香散2	동명처방 이동
安眠散	安眠散1	安眠散1	
又方			
半夏圓	半夏丸	半夏丸	
人參圓	人參丸	人參丸	
	潤肺丸2	潤肺丸2	동명처방 이동
鍾乳補肺湯	鍾乳補肺湯	鍾乳補肺湯	
紫團參圓	紫團參丸	紫團參丸	
蘆筒散	蘆筒散	蘆筒散	
款冬花散	款冬花散1	款冬花散1	
又方			
清肺圓	清肺丸	清肺丸	
白雪圓2			甲辰字本, 寬政本の 白雲丸
卷8			乙亥字本만 권수 변경
治痰飲門下			
天南星圓	天南星丸	天南星丸	
	款冬花散2	款冬花散2	동명처방 이동
含化止嗽圓	嚙化止嗽丸	嚙化止嗽丸	
神功散	神功散	神功散	
百部散	百部散	百部散	
八味款冬花散	八味款冬花散	八味款冬花散	
紫參圓	紫參丸	紫參丸	
	開結枳實丸2	開結枳實丸2	동명처방 이동
消痰咳嗽圓	消痰咳嗽丸	消痰咳嗽丸	

法製溫半夏	法製溫半夏	法製溫半夏	
又方			甲辰字本, 寬政本の 法製半夏 處方
梅青圓	梅青丸	梅青丸	
玉塵散	玉塵散	玉塵散	
	安眠散2	安眠散2	동명처방 이동
異功圓	異功丸	異功丸	
法製白半夏	法製白半下	法製白半夏	
法製紅半夏	法製紅半下	法製紅半夏	
化痰鐵刷圓	化痰鐵刷丸	化痰鐵刷丸	
瀉肺湯	瀉肺湯	瀉肺湯	
消飲白朮圓	消飲白朮丸	消飲白朮丸	
白金散	白金散	白金散	
辰砂利痰圓	辰砂利痰丸	辰砂利痰丸	
人參前胡散	人參前胡散	人參前胡散	
白朮茯苓圓	白朮茯苓丸	白朮茯苓丸	
溫胃化痰圓	溫胃化痰丸	溫胃化痰丸	
三倍圓	三倍丸	三倍丸	
人參枳殼湯	人參枳殼湯	人參枳殼湯	
丁香半夏圓	丁香半夏丸	丁香半夏丸	
橘皮半夏湯	橘皮半夏湯	橘皮半夏湯	
枳實半夏圓	枳實半夏丸	枳實半夏丸	
皂白圓	皂白丸	皂白丸	
	法製半下	法製半夏	乙亥字本 法製溫半夏의 동명처방으로 이동
辛夷湯	辛夷湯	辛夷湯	
龍膽圓	龍膽丸	龍膽丸	
鑷飲枳實圓	鑷飲枳實丸	鑷飲枳實丸	
天門冬圓	天門冬丸	天門冬丸	
神秘湯	神秘湯	神秘湯	
紫菀湯	紫菀湯	紫菀湯	
養肺圓	養肺丸	養肺丸	
立效圓	立效丸	立效丸	
沉香墮痰圓	沉香墮痰丸	沉香墮痰丸	
除痰圓	除痰丸	除痰丸	
乳香半夏圓	乳香半夏丸	乳香半夏丸	
細辛五味圓	細辛五味湯	細辛五味湯	
玉液散	玉液散	玉液散	
寧肺散	寧肺散	寧肺散	
紫金散	紫金散	紫金散	
暖胃湯	暖胃湯	暖胃湯	
	白雲丸	白雲丸	동명처방 이동
錦朱圓	錦朱丸	錦朱丸	
人參紫菀湯	人參紫菀湯	人參紫菀湯	
壞痰丸	壞痰丸	壞痰丸	
人參蛤蚧散	人參蛤蚧散	人參蛤蚧散	

(3) 약량 표기 방법

甲辰字本과 寬政本의 약물 표기순서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 하지만 乙亥字本에는 약량이 많은 약물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약량을 ‘一二三四~’ 대신 ‘壹貳參肆~’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용량기재의 정확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표 3).

표 3. 약량 표기 방법 비교

판본	처방
甲辰字本, 寬政本	白朮 人參 白茯苓去皮 白礬生 滑石 貝母 各一兩 天南星生用 一兩半 白附子生 二兩 半夏湯洗 三兩
乙亥字本	半夏湯洗 參兩 白附子貳兩 天南星生用 壹兩半 白茯苓去皮 白朮 人參 白礬生 滑石 貝母 各壹兩

(4) 복용법 표기 방법

甲辰字本과 寬政本에는 복용법에서 본초의 총 개수를 대부분 표기하지 않았으나, 乙亥字本에는 대부분 본초의 총 개수를 기재하였다.

표 4. 복용법 표기 방법 비교

판본	처방
甲辰字本, 寬政本	右爲細末 水麵糊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五十丸 食後生薑湯下 漸加至一百丸 忌豬肉 蕎麵等物
乙亥字本	右件十四味爲細末 水麵糊爲丸 如梧桐子大 每服五十丸 食後生薑湯下 漸加至一百丸 忌豬肉 蕎麵等物

3) 오류 처리 방법

乙亥字本, 甲辰字本, 寬政本의 오류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神應丹

판본별 神應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판본별 神應丹 비교

판본	처방
甲辰字本	神應丹 治諸遠年喘嗽 麻黃一十斤 走水洗淨 去土搗爛 用河水四擔浸一宿 炒鍋熬至一擔 去滓 貝母炒 去心 桑白皮去土 紫蘇子 款冬花去枝梗 桔 梗 知母 各二兩 栝蒌大者一個 皂角二挺 去皮弦子 已上八味 搗爛 入前麻黃汁內 熬至一半去滓 澄取清汁 再熬成稠膏 白茯苓二兩 去皮 紫苑洗去土 天麻 人參去蘆頭 已上三味 各一兩 爲細末 阿膠杵碎 炒 爲末 秤一兩 入藥拌勻 右以藥末搜和前膏 杵熟爲丸 (이하 생략)
寬政本	神應丹 治諸遠年喘嗽 麻黃一十斤 走水洗淨 去土搗爛 用河水四擔浸一宿 炒鍋熬至一擔 去滓 貝母炒 去心 桑白皮去土 紫蘇子 款冬花去枝梗 桔 梗 知母 各二兩 栝蒌大者一個 皂角二挺 去皮弦子 已上八味 搗爛 入前麻黃汁內 熬至一半去滓 澄 取清汁 再熬成稠膏 白茯苓二兩 去皮 紫苑洗去土 天麻 人參去蘆頭 已上三味 各一兩 爲細末 阿膠杵碎 炒 爲末 秤一兩 入藥拌勻 右以藥末搜和前膏 杵熟爲丸 (이하 생략)
乙亥字本	神應丹 治諸遠年喘嗽 麻黃壹拾斤 走水洗淨 去土爛搗 用河水四擔浸一宿 炒鍋熬至二擔 去滓 栝蒌大者一個 皂角貳錠 去皮絃並子 貝母炒 去心 桑 白皮去土 紫蘇子 款冬花去枝梗 桔梗 知母各貳兩 已上八 味搗爛 入煎麻黃汁內 熬至一半去滓 澄取清汁 再熬成稠膏 白茯 苓去皮 阿膠杵碎 炒 爲末 入藥拌勻 各壹兩 紫苑洗去土 天麻 人參去蘆頭 已上參味 爲細末 各壹兩 右件十四味 以藥末搜和前膏 杵熟爲丸 (이하 생략)

寬政本 神應丹의 ‘已上八味’는 약물이 8개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9개가 나온다. 물론 뒤에 麻黃이 나오기 때문에 9개 중 麻黃을 제외한 8개 본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已上三味’는 앞에 白茯苓, 紫苑, 天麻, 人參이 있으므로 3개가 아니라 4개이므로 오류이다.

이에 반해 乙亥字本에는 白茯苓과 阿膠의 분량을 各壹兩으로 설명하고 이후 紫苑 天麻 人參을 열거하여 다시 各壹兩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人參 뒤에 ‘已上參味’로 설명하여도 내용상 문제가 없다.

(2) 安眠散

판본별 安眠散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판본별 安眠散 비교

판본	처방
甲辰字本, 寬政本	猪牙皂角去皮 酥炙 各二兩半 已上各二錢半
乙亥字本	猪牙皂角去皮 酥炙 各貳兩半

甲辰字本에는 猪牙皂角의 분량을 ‘各二兩半’이라 하고 다시 뒤에 ‘已上各二錢半’이라 하여 중복 기재하였다. 寬政本에도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에 반해 乙亥字本에는 ‘已上各二錢半’을 삭제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3) 人參枳殼湯

판본별 人參枳殼湯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판본별 人參枳殼湯 비교

판본	처방
甲辰字本, 寬政本	右咬咀 作一劑 每用藥二兩半 六一服用泉水二大盞半 先揚水二百一十遍 入生薑一七錢 切碎 (이하 생략)
乙亥字本	右咬咀 作一劑 每用藥二兩半 爲一服用泉水二大盞半 先揚水二百一十遍 入生薑一七錢 切碎 (이하 생략)

甲辰字本과 寬政本의 복용법에 ‘六一服’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乙亥字本에는 ‘爲一服’으로 되어 있어 문장의 의미를 바로 잡았다.

이처럼 판본별 차이는 乙亥字本이 藍本의 오류를 수정하였기 때문이고, 甲辰字本과 寬政本은 藍本을 校勘하여 차이가 없다[無差]고 하였으나, 차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考察

元代 御藥院에서 사용했던 처방을 정리하여 간행한 『御藥院方』이 언제 朝鮮에 유입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판본으로는 최소 3종류 이상의 異本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御藥院方』 初刊本은 전해지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에 총 3종의 異本이 존재한다. 한국에는 한독의약박물관과 연세대학교에 乙亥字本 『新刊惠民御藥院方』이 있고, 일본에는 內閣文庫에 甲辰字本과 寬政本 『癸巳新刊御藥院方』이 있다. 乙亥字本 『御藥院方』은 燕山君~中宗 시기 朝鮮

에서 간행되었으며, 甲辰字本 『御藥院方』은 明宗 시기에 朝鮮에서 刊行되었고, 寬政本 『御藥院方』은 1798년 日本에서 刊行되었다.

2. 「痰飲門」을 중심으로 살펴본 『御藥院方』의 3종 異本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1) 乙亥字本에는 권7과 권8에 上下로 나누어져 있고, 甲辰字本과 寬政本에는 모두 권5에 기재되어 있었다.

2) 乙亥字本에는 ‘較勘無差’가 없다. 甲辰字本과 寬政本에는 卷頭 다음에 ‘較勘無差’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藍本을 그대로 刊行하면서 校勘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乙亥字本에는 同名의 다른 處方을 처음 등장한 處方 다음에 ‘又方’을 표기하고 한 곳에 모아 기록하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甲辰字本과 寬政本에는 同名의 처방이 산재되어 있어 처방의 배열순서에 차이가 있다.

4) 乙亥字本에는 處方藥物의 量數에 따라 배열하였지만 甲辰字本과 寬政本은 處方藥物의 分量과 상관없이 나열되어 있다.

5) 乙亥字本에는 용량표기를 할 때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을 사용하지 않고 ‘壹貳參肆伍陸柒捌玖拾’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甲辰字本과 寬政本에는 용량표기를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으로 표기하였다.

6) 乙亥字本에는 복용법에 약물의 총 개수를 적시하였다. 하지만 甲辰字本과 寬政本에는 복용법에 약물의 총 개수를 대부분 기재하지 않았다.

7) 乙亥字本과 寬政本에는 상대적으로 문맥상 誤脫字가 거의 없는데 반해, 甲辰字本에는 誤脫字가 다수 있었다.

3. 乙亥字本에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 甲辰字本에는 내용상 오류를 수정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寬政本에는 甲辰字本의 오류를 그대로 따랐다.

IV. 結論

본 論文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乙亥字本은 『御藥院方』의 처방순서를 열람하기 편하게 변경하고, 해당문의 권수를 분량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내용오류를 수정하였다. 둘째, 甲辰字本은 『癸巳新刊御藥院

方』을 藍本으로 校勘하여 간행한 서적이다. 다만 校勘에 정확도가 떨어져 誤字가 다수 발견된다. 셋째, 寬政本도 『癸巳新刊御藥院方』을 藍本으로 校勘하여 간행한 서적이다. 甲辰字本에 비해 誤字는 적지만, 간행 형태와 내용 그리고 오류까지 甲辰字本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寬政本의 藍本은 甲辰字本으로 판단된다.

『御藥院方』은 中國에서 처음 刊行된 서적이지만, 朝鮮에 유입된 후 『醫方類聚』나 『東醫寶鑑』에서도 그 內容을 수록하였고, 乙亥字와 甲辰字로 刊行할 정도로 당시 朝鮮에서는 의미 있는 서적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朝鮮에서는 乙亥字本을 간행하여 內容을 수정하고 정리하려 노력하였고, 乙亥字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辰字本을 간행하여 기존의 연구를 반영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日本에 유입되어 刊行된 寬政本 『御藥院方』은 일면 甲辰字本에 비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 甲辰字本과 아무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甲辰字本의 오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寬政本의 藍本은 中國에서 간행된 『御藥院方』이 아니라 甲辰字本이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1. 周益新. 「『御藥院方』研究」. 山西中醫. 2007;23(1):55-58.
2.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담구당. 1981:180.
3.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續修四庫全書(권1001)』.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95.
4. 新刊惠民御藥院方.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
5. 新刊惠民御藥院方. 연세대학교 소장본.
6. 엄동명, 송지청, 금경수. 「『신간혜민어약원방·담음문』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2;25(4):115-122.
7. 三木榮. 『朝鮮醫書誌』. 東京:井上書店. 1956.
8. 張金吾. 『愛日精廬藏書誌』.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4.